

“리니지·오딘 게 셋거라”... 게임업계, 여름신작 경쟁 ‘후끈’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선배
컴투스 16일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신작
넥슨 ‘히트2’ 25일 모바일·PC 출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대표 이미지,



/넷마블 컴투스‘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미지,



/컴투스 넥슨게임즈의 첫 작품 히트2 이미지

/넥슨

8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에 돌입하자 게임사들도 이에 맞춰 신작을 줄줄이 출시하고 나섰다.

주이용자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여름방학, 명절 등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이같은 성수기 특수를 노리고 이용자들의 신규 유입과 충성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 컴투스,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여러 게임사들이 각자 IP를 활용한 신작을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재 국내 양대 시장에서 매출 등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을 밀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이미 출시한 신작... 보증된 흥행수표?

우선 넷마블은 지난달 28일 MMO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정식 출시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지난 2015년 출시한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후속작이다. 세븐나이츠레볼루션은 원작의 특성을 가장 극대화한 작품으로, 이용자에게 세븐나이츠 영웅이 되는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게임성을 계승하고 있다.

세븐나이츠레볼루션은 출시 후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 매출 7위를 기록했다. 출시 전날인 27일 사전 다운로드 5시간만에 앱스토어 인기 1위, 출시 당일 7시간만에 양대마켓 인기 1위,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했다.

이같은 보증된 세븐나이츠레볼루션이 지난 29일 PC 버전을 시작했다.

PC 버전은 PC 플레이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기본 조작 플레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계정과 연동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세븐나이츠레볼루션 공식 사이트를 통해 PC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대표 한영운)는 플레이왕이 개발한 PC 온라인 슈팅 대전 게임 ‘센추리: 에이지 오브 애쉬즈(Century: Age Of Ashes, 이하 센추리)’를 지난 27일 ‘스토브’에 공식 한글화된 버전으로 정식 론칭했다. 센추리는 누구나 플레이 할 수 있는 PC 무료 슈팅 대전 게임으로, 뛰어난 그래픽과 드래곤 공중 슈팅 대전 컨셉으로 빠른 속도감과 파괴력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을 즐길 수 있다.

◆ 출시 앞둔 ‘보증된’ 신작... 제치고 올라갈까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작들도

있다.

우선 컴투스는 오는 16일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출시한다. 이 게임은 ‘서머너즈 워: 장공의 아레나’ IP를 활용한 신작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바 있다.

서머너즈 워 IP는 지난 2014년 출시 후 전 세계 1억5000만 다운로드, 90개국 게임 매출 1위, 140개국에서 톱10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출시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서머너즈 워 지식재산권(IP) 최초로 소환사가 게임에 직접 등장해 3마리의 소환수와 팀을 이뤄 전략 전투를 펼치는 소환형 MMORPG다.

넥슨은 오는 25일 ‘히트2’를 국내 모

바일과 PC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한다. 넥슨은 개발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처음으로 출시하는 작품이라 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 넥슨게임즈는 “그간 쌓아온 역량으로 최고 수준의 게임 퀄리티를 선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히트2는 지난 2015년 출시된 원작 히트의 세계관을 기반으로한 대규모 필드 전투를 핵심 시스템으로 도입한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PC·콘솔 신작 ‘TL’을 연내 출시 예정이다. TL과 프로젝트E는 세계관을 서로 공유하는 엔씨의 새로운 오리지널 IP다.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두 대륙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스마트 선택근무제’ 본격 시행

근무시간 자율 조정... 주 4일제 가능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 변모 노력”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1일부터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월단위 총 근무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월, 화, 수, 목요일은 2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달아 쉬는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임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해 업무 몰입도도 높이고 워라밸도 챙기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적극 나서면서다.

스마트 선택근무제는 업무상 상시 대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한 국내 사무직 직원 전원이 적용 대상이다.

선택근무제 시행으로 CJ대한통운 직원들은 월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월 22일 근무의 경우 월간 총 근무시간인 176시간 안에서는 매일의 출·퇴근시간이나 주간 단위 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회계결산 등으로 월말에 집중 야근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는 좀 더 일하고, 대신 더 일한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서 빼면 된다.

특히 프로젝트나 TF처럼 특정기간

에 집중해 근무가 필요하거나 월간 단위 마감처럼 고정적으로 특정시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선택근무제의 효용은 더 높아진다.

선택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나 탄력근무제보다 유연성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혁신적인 인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 이정현 인사지원실장은 “스마트 선택근무제는 고정적이고 관행화된 업무 스타일을 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혁신적 조직문화를 갖춘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육성 스타트업, 공모전·지원사업 ‘펼 펼’

정부·공기업 사업 선발비중 매년 상승

SK텔레콤 육성 ‘스타트업’들이 정부·공기업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과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 자사가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 4개사가 선발되는 등 다수의 정부·공기업 공모전과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육성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된 10개 스타트업 중 SKT가 지원 중인 스타트업은 4개 팀이다.



SKT가 육성하고 있는 ‘ESG코리아 2022’ 선정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울지루 소재 SKT 트루이노베이션랩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모습. /SKT

SKT는 2020년부터 매년 과기부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육성 기업들의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윤정 기자

기보 미래 전략산업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조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격차 미래전략산업 관련 기업이다.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등 5대 분야 14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기술보증 우대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연구개발 자금과 기술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기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지원 산정 한도 확대(최대 130%)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최대 0.2%p) 등 우대 혜택을 준다.

/김승호 기자

LGU+, 구독형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출시

AI 비전검사·모터진단·설비보전 3종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 고객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공장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1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구독형 스마트팩토리 서비스는 ▲AI(인공지능)비전검사 ▲모터진단 ▲설비예지보전 3종이다. 이 솔루션들은 제품품질과 설비상태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기 때문에, 운영과 유지보수 노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부담 없이 생산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AI비전검사’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시각 이미지를 해석해 제품 불량률 판독하는 기술이다. AI비전검사는 작업자의 육안검사로 진행해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업무 피로도도 높은 품질검사 공정에서 주로 활용된다.



LG유플러스의 AI비전검사 솔루션이 도입된 공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모터진단’은 모터의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1300만 개의 모터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모터를 진단한다.

‘설비예지보전’은 공장의 베어링 및 구동축 등 회전체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솔루션으로,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전체 공정이 중단되는 손해를 예방한다.

/채윤정 기자 echo@

KT ‘배달중개-유선전화’ 패키지 서비스

‘사장님 배달POS 전화’ 상품 출시

KT가 배달 중개 POS 솔루션인 ‘사장님 배달POS’와 유선전화 요금제를 결합한 ‘사장님 배달POS 전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장님 배달POS는 지난 2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배달 중개 플랫폼 대표기업 (주)푸드테크와 협력으로 출시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등 다양한

배달앱들의 주문 수락과 배달대행 라이더 호출을 동시에 처리한다. 특히 배달의 민족과는 정식 연동돼 경쟁사 대비 주문 처리가 빠르고 간편하며 전국 90여개 배달 대행사와 연동된 점이 강점이다.

사장님 배달POS를 이용하면 복잡한 배달주문 처리를 빠르게 처리해 피크타임에 몰린 주문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가게 매출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윤정 기자